

#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미음성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양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디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  
nmaum

## 법공양 페이지

# '잘된다' '안된다' 에 연연하지 않아야

15면에서 계속

로는 허용할 수 없는 겁니다. 언젠가, 내가 스물셋살 때 길을 가다가 기운이 없어 소뿔에 머리를 박고 쓰러졌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와서 나를 깨워놓고는 놓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누구인가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근처에 갈대가 뿔뿔하게 들어서 있더라고요. 그 갈대조차도 이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다 알게 돼 있어요. 마음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은 통하질 않지만 말이예요.

그런데 그 갈대 속에 큰 나무가 한 그루 서 있더군요. 거기서 주둥이를 해서 나를 씹어 준 거예요. 물론 길로 보기에 보이는 것만 같았죠. 정신을 차려서 내가 스스로 가서 머리를 전부 씻은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몸으로 가서 머리를 씻었는데 그 옆에 가서 머리를 씻어 주었고, 씻어 주니까 내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씻은 것도 아니고 그쪽에서 씻어 준 것도 아닌 것입니다. 단 일체제불의 한마음인 것입니다.

- 더러운 거든지
- 깨끗한 거든지
- 어떤 거라도
- 바다에 물 흘러
- 들어가듯 하면
- 저절로 정화돼요

일체제불의 그 마음이 일체 만물과 더불어 같이 하는 이치거든요. 그러니까 일체제불의 마음이 모두를 관할해서 모든 일체 중생들을 다 이끌어 진화시켜 주거든요. 하더라도 너무 앞서 하나라도 나무가 악선으로 되지 않고 착한 목적으로 자기를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응신으로 화해서 그렇게 진화를 시키거든요.

아까 얘기했듯이 한바다가 되도록 내 모든 것을 다 보살피고 더러운 거든지 깨끗한 거든지 어떤 거라도 바다에 물 흘러 들어가듯 그렇게 되면 저절로 다 그 물이 정화됩니다. 여러분이 더 잘 아시죠. 수증기로 올라가서 다시 내려오는 것을 말합니다. 수증기로 올라가서 다시 내려올 때는 그냥 내려오는 게 아니어요. 정화가 돼서 내려오는 거예요. 만일 정화가 되지 않으면 오물이나 세균 덩어리 같은 것들이 그대로 내려오게 되는데 정화를 했기 때문에 만물이 다 그 물을 먹고 살 수 있는 거죠. 나무도 보면 큰 대로 먹고 작으면 작은 대로 먹어요. 산길을 걸다 보면 요만한 딱이파리가 하나 나와서 나뭇잎을 거리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도 자기 생긴 대로 먹어요. 그래서 평등공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중생이 돼서 몸론다고 주장하진 않지만 말도, 나는 더하고 덜함도 없이 용도에 따라서 닦치는 대로 물을 씻고, 닦치는 대로 할 것이고, 닦치는 대로 걸을 것이고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투철하게 가지세요. 그러면 지나가다가도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관해 주어서 그 사람을 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때로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너무 모르는 사람에게는 알게 하기 위해서 그걸 내버려 두는 수가 있거든요. 내버려 두고 그 길을 터득하게끔 내버려 두는 것이지, 그냥 내버려 두는 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도 너그러운 마음, 지혜로운 마음으로, 공심으로서 공제로서 공용을 하시고 공용으로 공식을 하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게 전부 일체 만물만생이 다 공생하는 거 아닙니까? 작게 보시면 여러분 몸 속에서도 모두 공생하고 있죠. 그리고 공체이죠. 내가 본다고 내가 혼자 볼 수 있나? 다 몸 속의 생명들이 뒷받침을 해주니까 보는 거죠. 한 큰데만 무너져도 그냥 쓰러지게 돼 있다

구요. 이것은 현재의 일들이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닙니다. 현재에 지금 그렇단 얘기예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에 얽매이지 말고 그대로 가는 길에서 물러서지 않고 쭉쭉쭉 갈 수만 있다면, 정신계에서는 보이지 않는 데서 대처해 나가고, 보이는 데서는 보이는 육체로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결림이 없을 것 아닙니까? 이 세상을 사는 데는 보이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로는 안 보이는 게 문제입니다. 세균 하나가 악성으로 내 몸에 들어와서 주둔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그래서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안에서 해결돼 있는 게 모두 공심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볼 아리게 대처하거든요. 내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마음법이라는 게 그렇게 묘하고 광대무변하던 얘기죠. 여러분 마음이 한 번 바뀌어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성립이 되었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때로는 가만히 보면 여러분이 마음으로 지어 놓고 안된다고 필필 뛰는 걸 봅니다. 쿡에서 부스럼을 만들어 놓고는 아프다고 합니다. 이 몸통이는 그냥 넉넉하게 자기 가는 대로 가게 내버려 두고 '주인공!' 하고만 관하세요. 이 몸통이를 가지고 아무리 해봐도 병만 나고 쓰러지게 되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이 주인공 하나만 붙들면 이 몸 속에는 생명들을 다 붙잡을 수가 있죠. 또 주인공을 믿고 나가는 데는 급하면 하다못해 풀이파라도 가져다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일체 하나마다 영혼이 돼서 다 합쳐 준다면 무슨 일은 못하겠습니까?

예전에 이런 옛날 얘기 책이 있었습니까. 내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박부인전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야! 박부인은 이 세상에 아주 못나디 못나디 태어났어. 시집을 갔는데 장군이 남편이 불뉘어서 간혀 있으니 어떡하면 좋을까? 그리고 만일 군사들이 너희 집으로 쳐들어온다면 너는 어떡하겠느냐?" 하고 물으시면서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박부인은 남장을 하고 말을 타고 가서 포위된 남편을 꺼내 주고는 남편이 알까 봐 서둘러서 집으로 달려오는 거예요. 남편이 급할 때마다 박부인이 장군으로 와서 구해주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남편 장군이 이거 오기만 하면 누구든지 한번 잡아가 보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어느 날 그 장군이 또 와서 포위가 된 것을 꺼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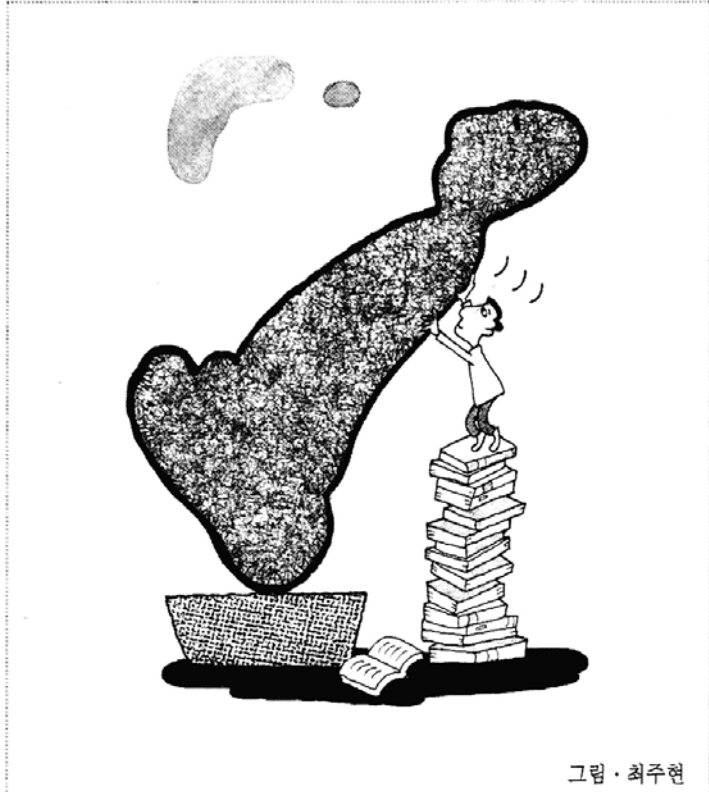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다. 그러니까 99%는 모두가 부처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졌다는 겁니다. 99%! 그것은 왜냐하면 마음 하나만 까딱하면 100%가 된다는 얘기죠.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고등동물이기 때문에 부처가 될 자격이 100% 다 있는 거죠. 그런데 마음으로 그렇게 수없이 살아오던 습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관습에 의해서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거죠. 그게 말이예요.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것 말이예요. 그런데 그 습이 사라지면 자기 마음을 가지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죠. 어떻게 들어오든지 죽든지 살든지 그거짓 것 하고 내팽개치는 것인데, 왜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까?

내가 그 말을 가끔 해요. 처음 여기 오던 해에 김창 때인데 그릇이 없었어요. 그릇도 없고 고무통도 하나 없고, 항아리도 없었어요. 그때는 신도들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한생각 내기를

없으면 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 알아서 해라'고 그랬지요.

우리가 돈을 쌓아두고 남을 도와주는 게 아니어요. 우리 항상 털털이로 살아요. 털털이로 털털이 아세요. 사람이 털털이로 살면 아무 걱정이 없어요. 도둑이 들어올까봐 걱정도 없었죠. 여러분은 감추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불안한 거예요. 옛날에 어느 스님이 그렇게 감추는 마음으로 죽었더니 큰 구렁이가 뿔뿔합니다. 큰 구렁이니까 비늘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 비늘 속에는 그 스님에게 시주했던 사람들이 전부 구더기가 돼서 있는 거예요. 구더기가 돼서 돈을 줬으니 대가를 내 놓으라구요. 그렇게 구더기가 돼서 비늘 속에서 웅성거리니 그놈의 몸통이 살 수가 없어가지요. 그래서 그 절도 망하고 다 망했는데 구렁이 하나가 남아서 도를 통한 스님 하나 만나기를 기다렸어요. 오직 도를 통한 스님 하나 만나기를 수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 대가 바라지 않고 하는 마음이 한마음 도리 감추는 마음 있으니 불안 '털털이'로 살아야

'이거 참, 김치는 해먹어야 될 텐데 그릇도 항아리도 없으니 당신이 알아서 해!' 하곤 그냥 잊어버렸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배추를 뽑아다 놓고 그런 지경에 있으면 아등바등했을 테지만 나는 김치를 하든 못하든 그건 상관하지 않았어요. 김치를 못하면 어떻게 하면 어떻습니까? 못하게 되면 못하는 거지, 안 그래요?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이소저라는 할머니가 청량리에서 사셨는데 거기 있던 사람이 발안간에 그냥 여길 오고 싶더라는 거죠. 그리고 김창 때도 됐을텐데 그릇도 없을 거라 생각하고는 고무통 큰 거 몇개를 사고, 항아리도 다섯 개 있는 걸 다 싣고 온 거예요. 그 큰 것을요. 거기다가 쌀 두 가마니도 싣고, 그렇게 밤중에 왔길래 내가 그랬어요. '허 참! 있긴 있구만, 허허허. 있긴 있구만...' 하고요.

지금 울산지원에 불사를 하는데 돈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있다면 할 것이고 없다면 못할 거니까 그 거 1년이 간들 어떻게 2년이 간들 어떻게 10년이 간들 어떻게 100년이 간들 어떻게, 꼭 지어라고 나에게 꼬리표 붙여 놓은 게 아니냐. 부처님이 계시다면 할 것이고 안 계시다면 안 할 것 아니냐. 그게 바로 네 자성불이다. 자성불이 있어야 모두 통하는 것이지 자성불이

바지 자락을 쥐고선 늘어진 거죠. 바지 자락을 쥐는 것은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는 데서 그런 거죠. 그 스님은 아시지만 판 사람은 모르죠. 그렇게 구렁이가 사정사정 하나씩 그냥 우두커니 서서 스님은 그러냐고, "그럼 정히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냥 알겠노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그걸 볼 때 "저 스님 미쳤군! 아주 잘 미쳤어"하고 말하거든요. 그래요 스님은 그 소리를 들은 통 마는 통하고 구렁이를 그 이튿날 천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구렁이가 하는 소리가 "스님 스님! 내 겁데기가 벗겨지길랑 그것 좀 태워주세요. 스님이 태워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렁이가 말한 대로 가서 돈 감추어 놓은 데를 보니까 돈이 항아리로 그냥 몇 항아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 때에 옆에 있었으니까요. 그 옆을 꺼내서 동네 어려운 사람들을 다 주고 법당을 거기다 잘 지어 놓으면 판 스님이 와서 살게 하고 그 스님은 떠났더라고요.

이 세상에 참 얘기할 수 없는 얘기들이 많지만 그냥 소소한 얘기 한번 해 볼 겁니다. 여러분도 이걸 거짓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때는 방에 있으면, 어떤 노인네들이 여기 왔다 가기도 하고요. 또 예수제 지내달라고 하는 자선들도

주고는 비호같이 달려 가려요. 그래서 남편도 비호같이 날째 좋아했어요. 그러다가 박부인이 미처 감을 벗지 못한 채 불뉘어 버렸어요. 그런데 남편이 보니 그 장군이 바로 자기 아내잖아요. 못났다고 그 방에도 안 들어가고 온갖 구박을 한 자기 아내 말이예요. 그런데 일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개를 꼭 수 그리고 "장군이 당신이었구로"하고서는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일부터 믿게 보이게 한 것이지" 하면서 그날부터 그 방엘 들어갔는데, 예전에는 얼굴이 아주 못생기고 미웠는데 그 모습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 하얗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새로 탄생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번은 군사가 쳐들어오는 데, 초당 언저리에 노간주나무를 심어서 울타리가 되어 있는 것을 급히나 할 수 없으니 그 부인이 노간주 나무 잎새를 하나하나마다 전부 군사로 만든 거예요. 상대쪽에서는 전부 군사로 보이게끔요. 그러니까 쳐들어오지 못하고 그냥 후퇴했다는 거예요. 이쪽에 너무 군사가 많으니까 겁을 먹고요.

이제 부처님 법에서는 거짓이 아니지만 여러분은 거짓이라고 할 수도 있고 저절로 말이라고 하나 이럴 수도 있습니다. 할 말 없으니까 저런 말을 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지금 실제입니

까 밖에서 아무 소리가 안 나요. 그런데 내 안에서 '야, 문 좀 열어보자.' 이래요. 그래서 문을 이렇게 드니까 풀쩍거리고 속 빠지면서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문을 열고 나와 보니까 책상을 두 개를 놓고 양쪽에 앉아서 모두 열려서 자고 있는 겁니다. 전방을 먹다가 놓아두고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방을 가지고 나가야겠다"고 생각을 하곤 주섬주섬 봉지에다 넣어 가지고 나갔죠. 그게 바로 부처님 법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통째로 잘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게 해 놓고 나가게 한 것이지요. 그래서 나가서 한 일을 했으니까 상찬한 것이 아물고 다 나왔어요. 그러다가 어느 해인가 눈이 많이 와서 어디가 잘 데가 없어서 소나무 위로 올라갔는데 소나무가 책상을 이렇게 잘라낸 데 올라가서 앉았다 잠이 들었던 모양이예요. 눈이 좀 녹으면 내려가야 하다가 잠이 들었나 본데 아마 잠이 들은 채로 오해를 받았나봐요. 떨어져서 안나 두 개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예전에 생긴 모습이 하나도 없었고 다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 때문에 무척 고생했죠. 그러면서도 나는 누구를 원망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모습이라는 것은 잘 생기게 할 수도 있고 못 생기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못 생기게 한 것은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잘 생겼으면 내가 이렇게 중노릇하고 있었습니까? 약삭빠르고 똑똑하고 그러면 이 공부를 못해요. 좀 뜬금없고 못났으니깐 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 공부를 하되 세세생생을 얻는 것이지요. 자유권 말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식 낳고 세간에 서 산다고 해서 그것을 부당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오직 그것도 역시 공부라고 생각하세요. 식구가 모두 내 스승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상대적인 스승이 없다면 내 생활도 없고 공부도 못해요. 돌 하나, 나무 한그루도 없다면 내가 그걸 보고서 깨우칠 수가 없잖아요. 공부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요만한 거 하나도 버릴 것이 없고, 전부 내 스승이예요. 1천7백공안이 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자기는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없는 이유를 대 볼까요?

내가 항상 말하지요. 어떤 것을 봐도 금방 또 다른 걸 봐야 하고 또 금방 없어지고, 벌써 앞서 본 건 과거로 돌아가고 현재 또 봐야 합니다. 듣는 것도 현재에 금방 이것을 들으려고 하면 저게 없어지고 한 발 떼어놓으면 또 한 발이 없어요. 한 번 어떤 사람을 만나면 또 어떤 사람 만나야 돼요. 이렇게 하나씩 또 어디 다녔다 안 다녔다 봤다 안 봤다 들었다 안 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너무 많이 빠르게 화해서 돌아가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부처님 법에서

공심으로 공덕 짓고  
공심으로 받고  
공심으로 주고  
이렇게 하다보면  
풀잎 하나와도  
통해서 다 알게돼요

는 나뭇이라고 해요. 이렇게 자주 바뀌는 것을 나뭇이라고 그래요. 화해서 나뭇다, 건너편다고 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했다 안 했다 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먹을 뿐이고 그냥 걸을 뿐이고 볼 뿐이고 들을 뿐이고 만났을 뿐입니다. 그냥 모두가 공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뭘 그렇게 아등바등 착을 두고 애를 쓰고 울고 불고 그러니까?

어떤 부인이 있는데 남편이 다른 부인을 하나 또 두고 산다고 해요. 자식들도 있는데 이혼한다고 울고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신 남편이 이 세상 부인을 다 자기 부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기가 어려운가 봐요. '나 싫다는 데 어떻게 해'하며 순순히 놔주는 것도 좋지만 자식들 있는데 자식들을 또 희생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 모든 것을 침착하게 근본에 관하고 그저 '당신만이 그렇게 양하게 해 줄 수 있다' 하고 거기다 말하고 부드럽게 말해주고 부드럽게 행동을 해 주라 합니다. 일부러라도 더더욱 그렇게 해 주라고 합니다. 때로는 말 노릇도 하고 동생 노릇도 하고 어머니 노릇도 하고 아내 노릇도 하고 할머니 노릇도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또 남편은 남편대로 때로는 아버지가 돼 주고 할아버지가 돼 주고 오빠가 돼 주고 남편이 돼 주고 동생도 돼 줄 수 있는 그런 남편이래야 폭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하면 내 몸통이 안에서 벗어나서 이 지구라는 통 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 지구 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지구를 바깥에서 굴릴 수가 없어요. 내 몸통이 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내 몸통이를 내 마음대로 자기 굴릴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될 수 없으면 이 몸통 안에서 벗어나게끔 하려면 모든 것을 거기다가 몰아넣고 거기다 놓고 가다 보면 언젠가는 '당신밖에 없어. 주인공 너만이 내가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 하고 '당신이 있으면 답이 해' 하고 자문자답도 하다가도 답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석가세존도 자기 연등불이 바로 수기를 준 것이지, 수기 받은 놈도 없고 준 놈도 없었습니다. 자기 자 불이 바로 자기 연등불인 것입니다.

합친 주인공